

## 주요 내용

### 1. [빅데이터로 본 2022년 한국교회]

한국교회 언론보도, 5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 기사가 '부정' 기사 앞질러!

###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한국 섬 선교 실태
- 2) 한국의 국회의원 수(국제비교)
- 3) 한국 남성의 육아 참여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한국교회 언론보도, 5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 기사가 ‘부정’ 기사 앞질러!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탐구센터와 함께 2019년부터 4년째 온라인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넘버즈 33호, 81호, 126호 참조). 2019년부터 3년간의 주요 이슈로는 ‘목회자 범죄’, ‘코로나19’, ‘신천지’, ‘전광훈 목사’ 등 주로 부정적인 주제가 많았는데 2022년 처음으로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등 긍정적인 주제가 등장했다. 한편 가스펠투데이가 주관한 또 다른 빅데이터 분석은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를 통해 보도된 한국교회 관련 뉴스를 대상으로 했는데 201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 기사 건수가 ‘부정’ 기사 건수를 앞질렀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소식들이 언론을 덮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계 데이터를 얻는 방식에는 모집단(Population)에서 표본(Sample)을 골고루 뽑아 조사하는 표본조사 방식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 상에서 움직이는 데이터 전체를 뽑아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방식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표본조사가 보여줄 수 없는 매우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

〈넘버즈 178호〉는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교회에 대해 무려 124만 건이라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소개한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다 객관화하고 동시에 한국교회의 사회 소통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는 2019년부터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의 게시글과 댓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온라인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요

2022년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본문 및 댓글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 주요 키워드를 부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국 교회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을 실시함

1. 조사 주체 : 한국교회탐구센터
2. 분석 기간 : 2021.12.17. ~ 2022.12.16.(12개월)
3. 수집 채널 : 네이버 카페,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에 게시된 본문 및 댓글
4. 수집 키워드 : 기독교, 교회, 목사
5. 데이터 수집량 : 총 1,237,256건(중복 포함)  
(기독교 223,046건, 교회 732,835건, 목사 281,375건)
6. 데이터 수집 : API를 활용한 웹 크롤링 방식(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7. 자료 수집 : (주)골든플래닛(TousFlux)
8. 자료 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 • 용어해설

버즈량 : 특정 주제에 대한 웹상의 확산 지표

본문 수 : 특정 기간 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글의 수

댓글 수 : 특정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수

조회 수 : 특정 게시글을 조회한 수

연관어 :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글(혹은 댓글)을 형태소로 쪼갠 후 유의미한 단어들을 추출한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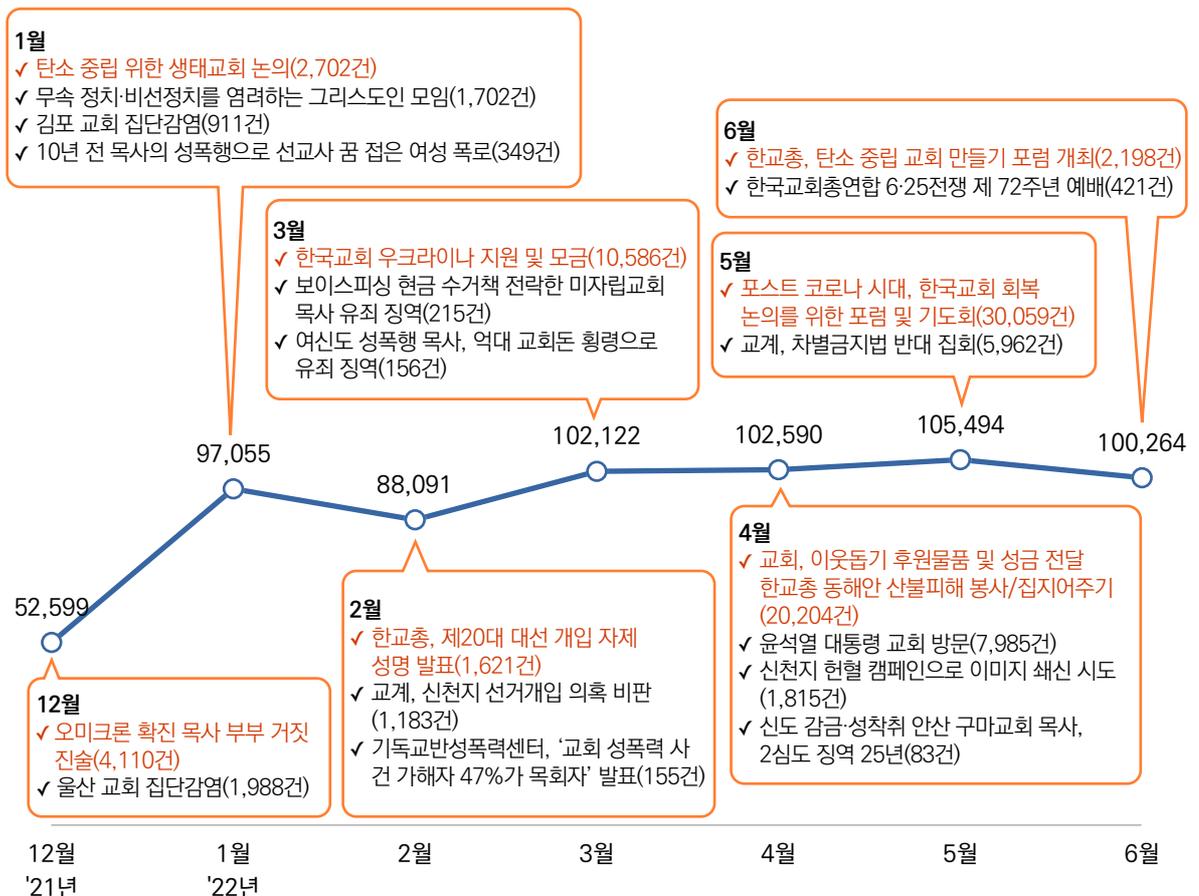
감성 분석 : 게시글 혹은 댓글의 본문을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여 형태소별로 긍정, 중립, 부정 점수를 계산한 후 합산한 값. 즉 특정 이슈에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면 긍정 글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면 부정 글로 분류함.

# 01

## 2022년 한국 교회, 온라인 여론 상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회복' 논의 가장 많다.

- ▶ 2022년 상반기 온라인 여론은 부정적인 이슈나 강력범죄가 아니라 교회의 회복과 역할에 대해, 그리고 이웃과 난민을 돕기 위한 지원과 모금 운동에 대한 버즈량이 많아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 ▶ 1월의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논의'와 6월의 '탄소 중립 교회 만들기 포럼'은 꽤 높은 버즈량을 보였는데,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과 교계 환경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 ▶ 3월의 '한국교회 우크라이나 지원 및 모금'이 10,586건이라는 많은 버즈량을 나타낸 것은 한국교회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넓어진 것으로서 세계적 연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 ▶ 4월의 '교회, 이웃돕기 후원 물품 및 성금 전달'이 20,204건의 버즈량을 보였는데, 부활절을 맞아 한교총을 비롯한 교회연합단체와 각 교회에서 이웃돕기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결과로 보인다.
- ▶ 5월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회복 논의를 위한 포럼 및 기도회'는 가장 버즈량이 많은 이슈였는데 (30,059건), 팬데믹 시대에 위축된 교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온라인 여론에서 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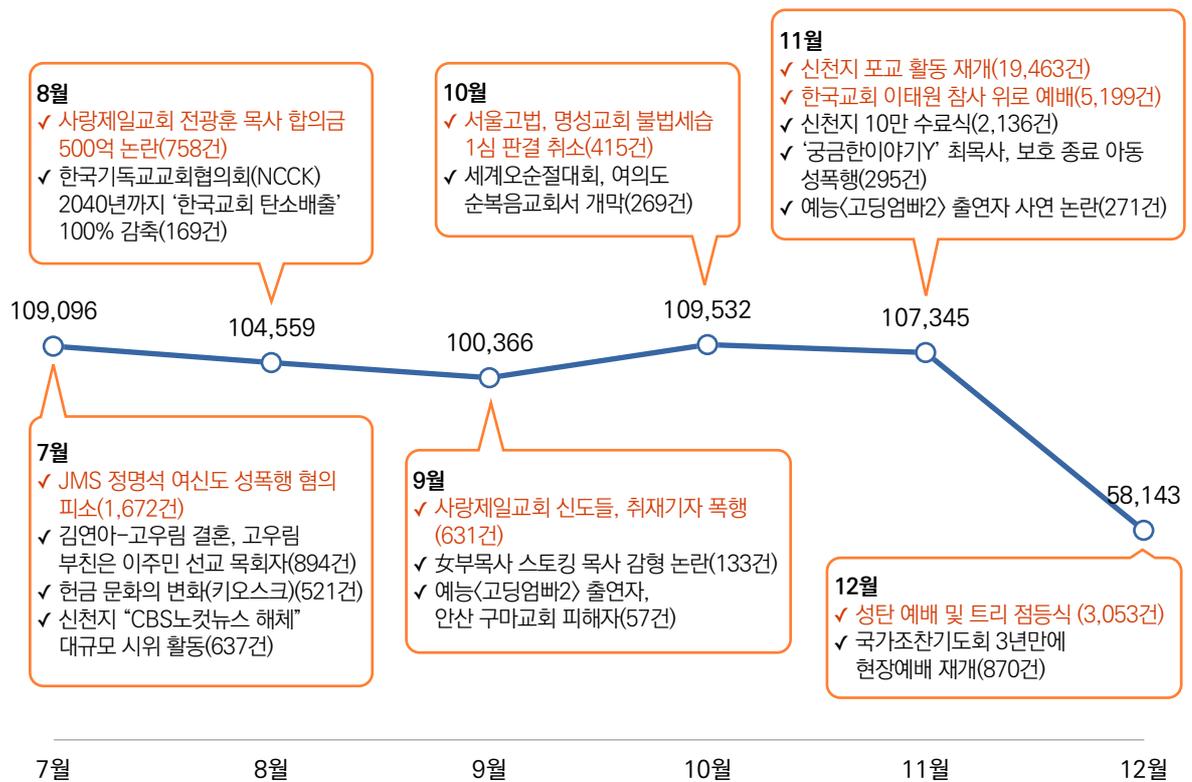
[그림] 월별 온라인 여론 추이 분석 (상반기 주요 이슈, 건)



## ◎ 하반기,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이슈 부각!

- ▶ 하반기 이슈 가운데 가장 많은 버즈량을 보인 것은 '신천지' 활동이다. 신천지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개로서 11월에 집중되었는데 하나는 11월의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19,463건)와 '신천지 10만 수료식'(2,136건)이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초기에 확산의 주범이 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질타가 쏟아지자 위축, 침묵 모드로 들어갔으나 이제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 포교 활동을 전개한 것을 알 수 있다.
- ▶ 하반기 이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11월에 5,199건의 버즈량을 보인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였다. 이는 하반기에 두 번째로 높은 버즈량으로서 이태원 참사가 안겨준 충격과 더불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국민적 관심사에 교회가 부응하여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 7월의 '헌금 문화의 변화(키오스크)'는 상대적으로 버즈량은 많지 않지만 교회 헌금 문화의 새로운 변화라는 측면에서 눈길을 끄는 이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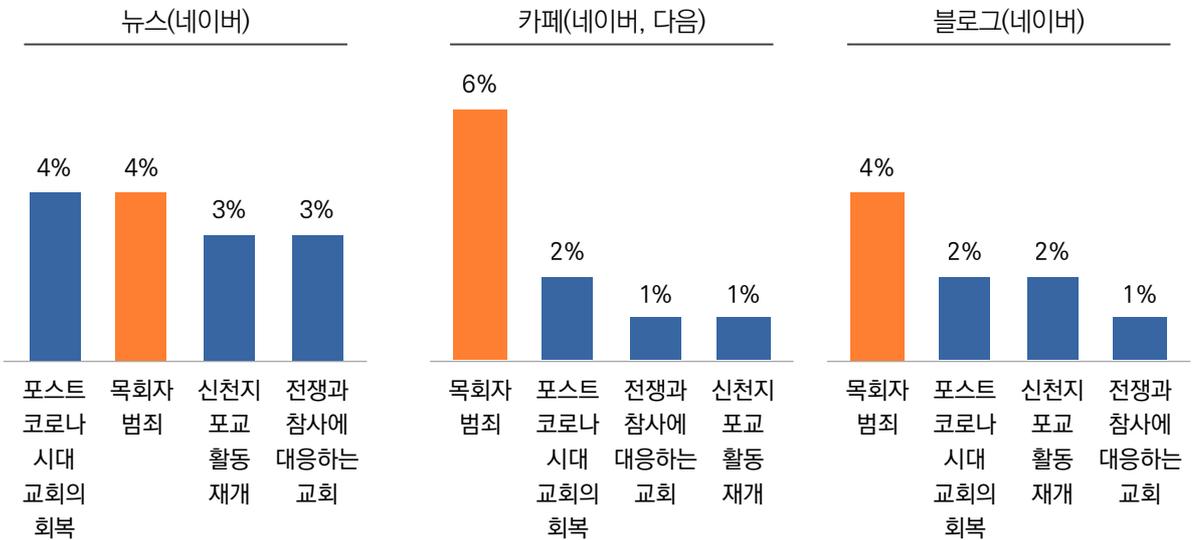
[그림] 월별 온라인 여론 추이 분석 (하반기 주요 이슈, 건)



# 02

## 2022년 한국교회 4대 이슈 도출

### 채널별 이슈 분포 분석



✓ 전체 통계량은 목회자 범죄(66,564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30,059건) >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19,463건) >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16,011건) 순

\*각 채널 전체 데이터에서 주요 이슈로 검색한 수치이며, 중복제거하지 않음(이슈 간 겹치는 데이터 있을 수 있음)

\*\*주요이슈 외에 일반적인 기독교적 단어 즉 예배, 성경, 나눔 등은 여기서 제외시켰음.



### 4대 이슈

주요 이슈	비중(전체 대비)
1.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1%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2%
3.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2%
4. 목회자 범죄	5%

✓ 채널별로 전체 게시물 중 비중이 큰 이슈를 각각 도출 후, 종합 주요 이슈 도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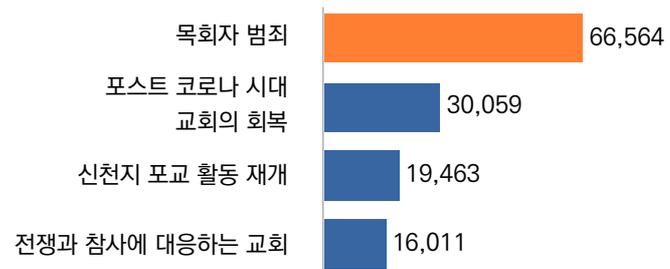
# 03

## 4대 이슈 중 버즈량으로는 ‘목회자 범죄’가 가장 많아!

- ▶ 2022년 한국 교회 이슈 가운데 온라인 여론 버즈량이 가장 많은 이슈는 ‘목회자 범죄’로 총 66,564건이었다.

[그림] 4대 이슈 화제성 비교 분석 (건)

### 이슈별 본문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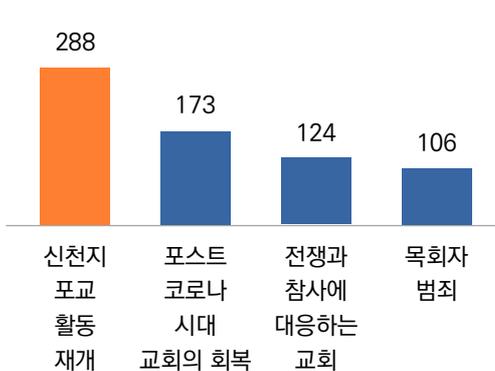
\*수집채널 :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 ◎ 관심도/참여도는 ‘신천지 포교 활동’, 주목할 이슈는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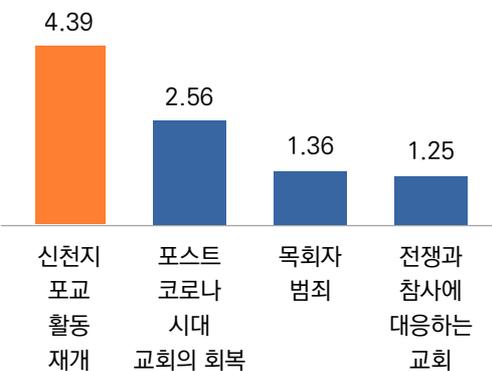
- ▶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가 본문 건수는 높지 않았는데 관심도와 참여도는 제일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한편으로는 신천지 교인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확산 노력과 다른 쪽에서는 신천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비판적 참여가 있었기에 관심도와 참여도가 다른 이슈와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의 본문 건수는 가장 적지만 노출기간에 비해서 상당한 버즈량을 보여주었다. 관심도와 참여도는 적은 편이나,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대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이슈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 ▶ ‘목회자 범죄’는 관심도와 참여도에서는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목회자 범죄가 새롭게 많은 사건인데다가 구체적 내용의 특이한 점이 없어서 관심도와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림] 4대 이슈 관심도와 참여도 비교 분석 (건)

### 관심도 비교 (본문 1건 당 조회수)



### 참여도 비교 (본문 1건 당 댓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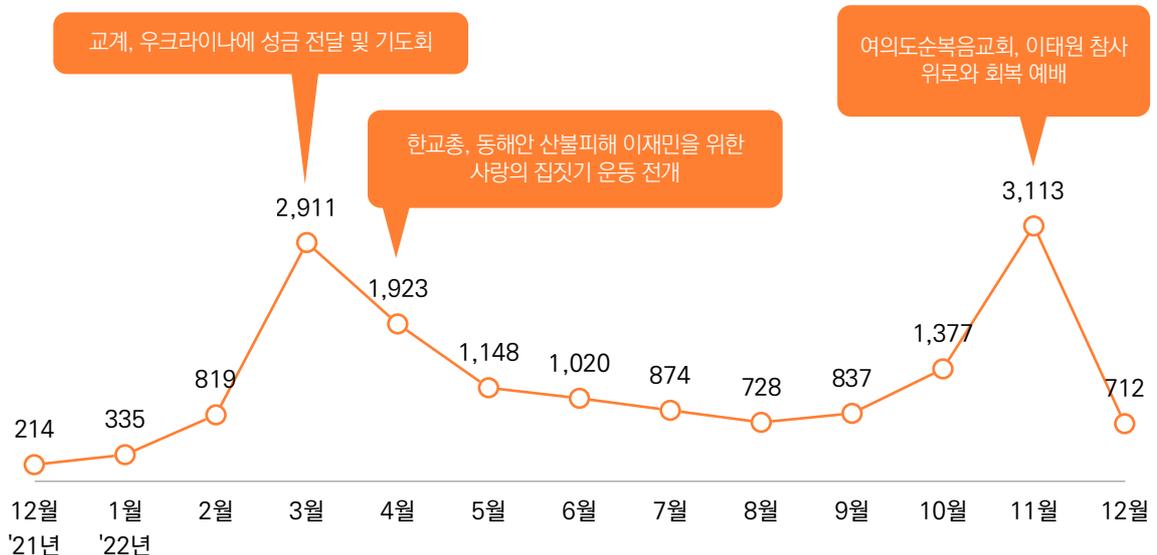
\*수집채널 :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 04

## [주요 4대 이슈 I]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수백만의 우크라이나 난민 및 사상자가 발생하자, 교회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회를 열고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였다.
- ▶ 대표적인 교회연합기구인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기도 요청뿐만 아니라 난민 구호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그 외에 한국교회봉사단과 같은 교계 기관 그리고 개별 교회 및 개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 등이 온라인에서 긍정적 여론을 형성했다.
- ▶ 2022년 10월 말 ‘이태원 참사’ 사건이 발생하자 교회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예배를 개최했다.
- ▶ 본문수, 조회수, 댓글수 등에서 객관적인 지표는 4대 이슈 중 가장 낮지만 사회적 파장, 단기간에 관심을 끈 점, 교회가 공적 기능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올해의 첫 번째 이슈’로 선정했다.

[그림]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건)



###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한교총, 동해안 산불 이재민 위해 새 집 35채 무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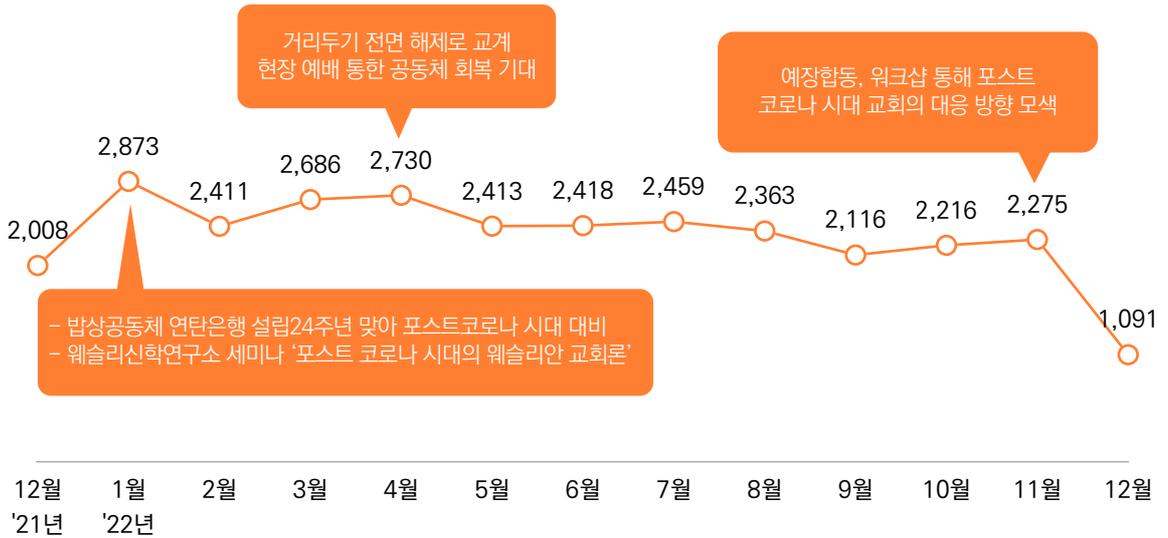
“나눌 수 있음에 감사, 위로할 수 있음에 감사,  
교회의 본질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듭에 감사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행동해야 할때 행동하는 한국교회,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 ◎ [주요 4대 이슈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 ▶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단체 및 기관에서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하여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 ▶ 온라인 예배 중심에서 현장 예배 중심으로 전환되었지만 참석하는 성도 수는 이전에 비해 줄어들면서 대면 예배를 강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론에 노출되었다.
- ▶ 본문수 2위, 관심도 2위, 참여도 2위로 일상 회복과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의 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옮겨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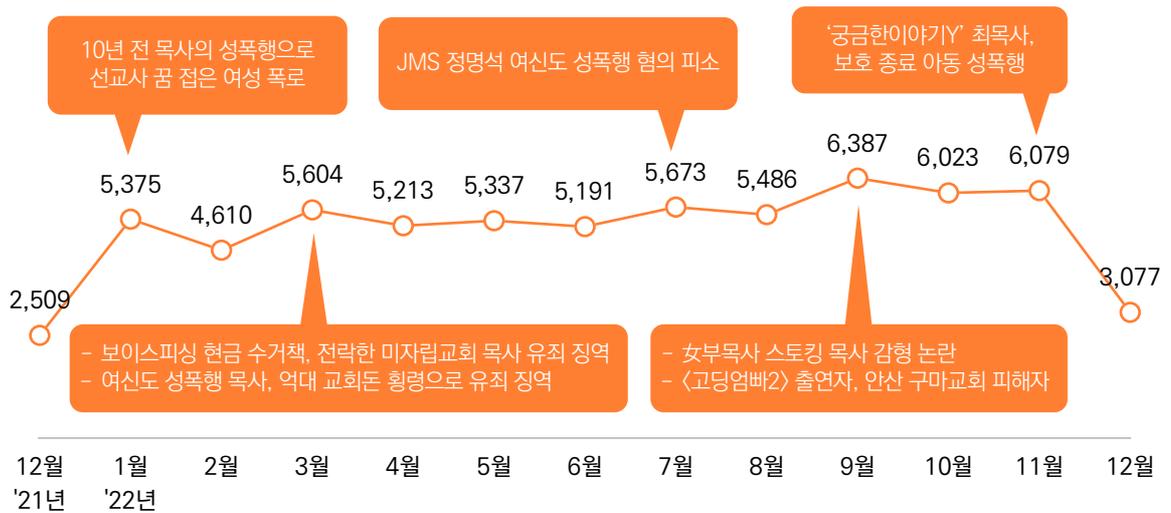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한국 교회에 던진 교훈과 도전을 환기하며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야 한다.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의 ‘현장성’을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 ◎ [주요 4대 이슈 III] 목회자 범죄

- ▶ 목회자 범죄 이슈로는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목회자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외에도 목회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횡령하는 범죄 사건들도 보도되었다.
- ▶ MBN 예능 방송 <고딩엄빠2> 출연자가 안산 구마교회 피해자로 밝혀졌으며, SBS 방송 <궁금한이야기Y>는 보호 종료 아동을 성폭행한 최 목사에 대해 방영했다. 미디어를 통해 목회자 성범죄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 ▶ 본문 수는 1위이나 참여도는 3위, 관심도는 4위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목회자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슈라서 새로운 관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목회자 범죄(건)



### [‘목회자 범죄’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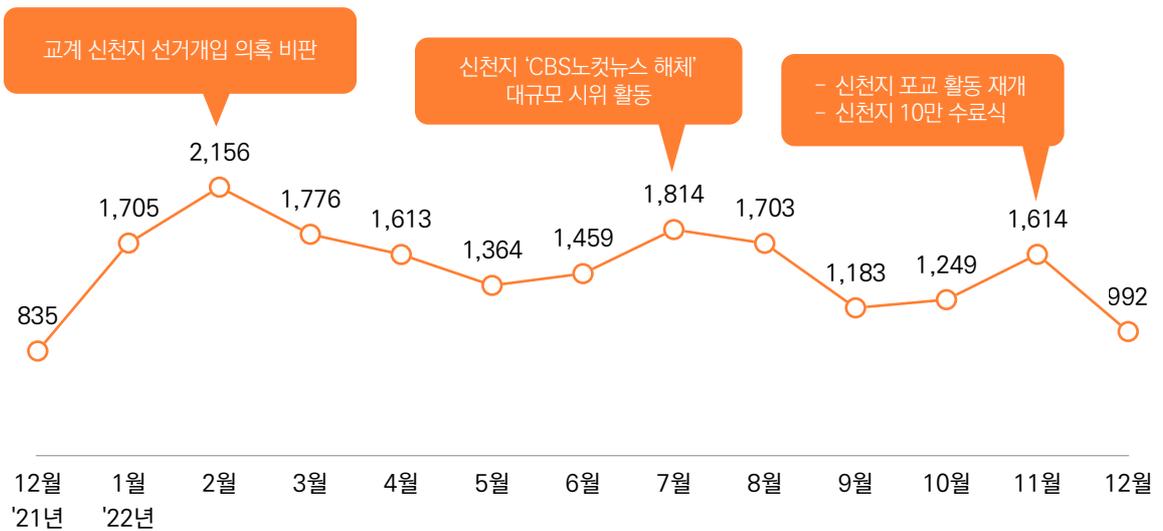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 피해자 중엔 유치원생도...”

“고딩엄빠에 또 한번 역대급 사건이 공개되었어요.  
혹시 안산 구마교회 사건 아시는지...안산에 있는 교회와 대안학교에서  
지난 20여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행위와 성인을 대상으로도  
육체적, 성적인 학대와 감금, 종교 강요, 노동착취가 벌어진 사건인데요...”

## ◎ [주요 4대 이슈 IV]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 ▶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신천지는 ‘아카데미’ 등으로 위장해 대학 커뮤니티 등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포교활동을 재개하였다.
- ▶ 2020년 신천지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고자 헌혈 캠페인, 유튜브 온라인 세미나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 본문수 대비 관심도와 참여도 모두 1위로 높게 나타난 것은 신천지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에 기인한다.
-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은 실추된 신천지 이미지를 만회하고자 사회적 봉사 활동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신천지 포교활동 재개 (건)



### ['신천지 포교활동 재개'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자신들의 규모를 알리고 교단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매해 대규모 행사를 벌이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 주춤해진 틈을 타 서서히 움직이더니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펼쳐지자 드러내 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 05

## 3년 연속 동일 이슈, ‘목회자 범죄’가 유일하다

- ▶ 2020~2022년 3년 연속 동일한 주요 이슈는 ‘목회자 범죄’가 유일했는데, 목회자의 성범죄 사건과 목회자의 교회 헌금 유용 등과 같은 내용이었다.
- ▶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목회자 성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JMS의 정명석이 피소된 것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헌금 수거책으로 전락한 미자립교회 목사 유죄 사건, 여신도 성폭행 목사 역대 교회 돈 횡령 유죄 사건, 여신도를 감금하고 성착취한 안산 구마교회 목사에게 원심 확정된 사건 등이 거론되었다.
- ▶ 코로나 관련 주제도 3년 연속 등장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초기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가 이슈화되었고 2021년에는 교회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주요 이슈였다. 2년 동안의 코로나 이슈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2년의 코로나 이슈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분적으로 해제되면서 포스트 코로나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코로나가 교회에 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교회와 예배 회복에 대한 관심이 커져 다양한 단체 및 기관에서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하여 교회의 회복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활발하게 만들어졌다.
- ▶ 신천지 관련 이슈는 2020년과 2022년에 등장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신천지가 부각된 사건이었고 2022년에는 신천지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다르다.
- ▶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는 2022년에 처음 등장한 이슈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이태원 참사 사건의 희생자 편에 서서 교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이는 긍정적 이미지 조성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2020년 ~ 2022년 주요 이슈 비교 분석

	주요 이슈	비중(전체 대비)
2020년	코로나19 확산	21%
	신천지	5%
	전광훈 목사	4%
	<b>목회자 범죄</b>	<b>1%</b>
2021년	코로나19 집단감염	14%
	<b>목회자 범죄</b>	<b>11%</b>
	방역수칙 위반	10%
	입양아 학대	3%
2022년	<b>목회자 범죄</b>	<b>5%</b>
	포스트 코로나 시대교회의 회복	2%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2%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1%

앞에서의 온라인 전반에 걸친 빅데이터 분석(Part A) 이외에 최근 발표된 언론 뉴스 보도만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스펠투데이 주관, 크로스미디어랩 수행(책임연구 옥성삼박사)
2. 대상기간 : 2018~2022년
3. 분석 대상 : 총 15개 중앙 언론 (일간지/경제지/방송사) 외 한국교회 관련 보도 기사
4. 검색 키워드 : 교회, 기독교, 목사, 예배,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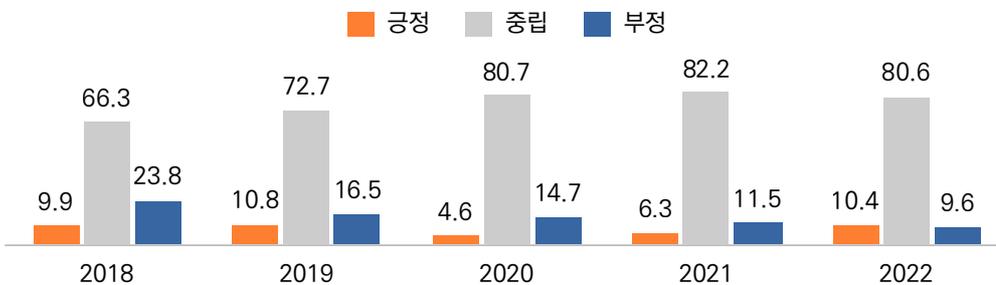
# 01

## [보도 성향]

### 5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관련 보도, ‘긍정’이 ‘부정’보다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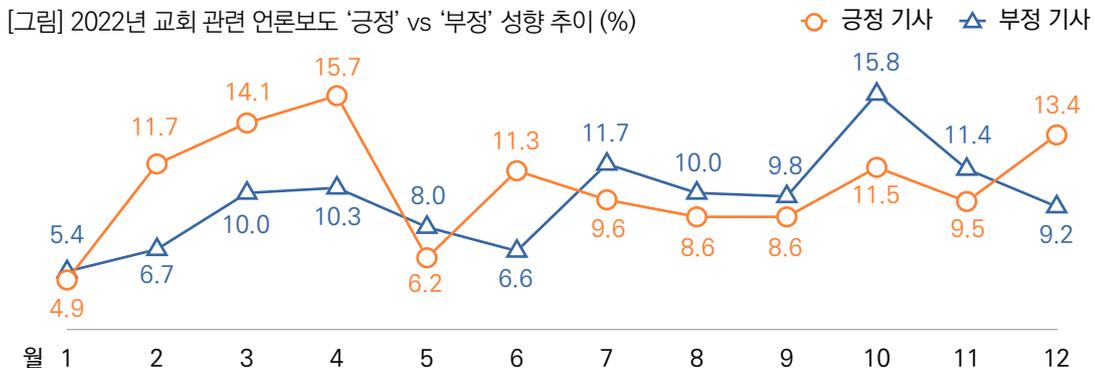
- ▶ 2022년 교회 관련 뉴스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보도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긍정 성향이 부정성향보다 0.8%p 높았는데,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 기사가 부정기사보다 더 많았다.
- ▶ 2022년, 긍정성향과 부정성향의 역전 현상을 가져온 요인으로는 1)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방역당국 및 사회와 교회 간에 갈등이 줄었고, 2)전광훈 목사의 극우 정치집회와 JMS의 성폭행 등 부정성향의 뉴스가 있지만, 이전에 비해 높은 부정적 이슈가 감소했으며, 3)우크라이나 전쟁, 동해안 산불피해,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한국교회(한교총 등)의 사회봉사활동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림] 연도별 한국교회 관련 언론보도 ‘긍정’ vs ‘부정’ 성향 추이 (%)



\*자료 출처 : 크로스미디어랩, 2022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개신교), 2023.1.20.

[그림] 2022년 교회 관련 언론보도 ‘긍정’ vs ‘부정’ 성향 추이 (%)



\*자료 출처 : 크로스미디어랩, 2022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개신교), 2023.1.20.

# 02

## [2022년 언론 주목 한국 기독교 단체] 언론이 주목한 한국 기독교 단체 ‘한교총’!

- ▶ 언론이 주목한 한국기독교 단체는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이다.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활동이 주요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는데, 특히 한교총은 금주의 인물과 교회 각각 1회, 금주의 이슈 7회, 금주의 좋은뉴스 3회 등 총 12회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12건 모두 긍정적으로 보도됐다.
- ▶ 언론이 주목한 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연합사역 그리고 교회 차원의 여러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표] 연도별 한국교회/단체 이슈

	2018	2019	2020	2021	2022
1	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	전광훈 정치연행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한교총 대사회활동
2	명성교회 세습	3.1운동 100주년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교회 집단감염	우크라이나 전쟁
3	신옥주 사기 폭행	목사 일탈	교회 집단감염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	전광훈과 극우 정치활동
4	목사, 그루밍 성폭력	명성교회 사태	대구 신천지	차별금지법	JMS 성폭행과 교회 성폭력 문제
5	오정현 목사 대체 복무제	사랑의교회 예배당 이재록 성폭력	.	채플, 인권위 권고 갈등	코로나 19

\*자료 출처 : 크로스미디어랩, 2022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개신교), 2023.1.20.

[그림]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언론보도 주요내용

한기총과의 통합논의, 부활절 연합예배, 우크라이나 지원, 울진 산불 이재민 집 선물, 기독교 문화유산 탐방,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추진,

[그림] 여의도순복음교회 언론보도 주요내용

평양 심장병원 추진, 코로나와 폭우피해 가정 지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지원, 희망박스 지원, 사회봉사 예산 책정, 부활절 연합예배, 세계 오순절대회, 한교총 대표회장 취임

\*자료 출처 : 크로스미디어랩, 2022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개신교), 2023.1.20.

# 03

## [2022년 좋은뉴스 vs 나쁜뉴스]

### 한교총, '산불 피해 이재민 집 선물' 가장 좋은 뉴스로 뽑혀

- ▶ 언론이 주목한 좋은 뉴스로는 한교총의 '산불 피해 이재민 집 선물'이 선정되었다.
- ▶ 반면, 언론이 주목한 나쁜 뉴스의 종류로는 '성폭행 관련'이 13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범죄가 12회, 극우 정치집회가 6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언론이 주목한 좋은 뉴스

- 한교총 주관 '산불 피해 이재민 집 선물'
- 다양한 출간 : 조지송 평전, 베어드 자료집, 성소수자 안내집, 우리가 사랑한 교회, 활천 창간 100년, 한국 초기 의료선교사 열전, 내한선교사 사전 등
- 개관 : 전주.강화 기독교역사기념관, 김규식 추모표지판, 한국순교자기념관 재단장, 삼척방주교회, 목원대 조각공원, 사애리시 선교사 기념관 등

\*자료 출처 : 크로스미디어랩, 2022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개신교), 2023.1.20.

[그림] 언론이 주목한 나쁜 뉴스

- 성폭행 관련 (13회), JMS, 기독교인터넷언론사 회장 아들 등
- 범죄(거짓말, 횡령, 사기갈취, 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채플강요 등) (12회)
- 극우 정치집회 (6회)

\*자료 출처 : 크로스미디어랩, 2022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개신교), 2023.1.20.

# 시사점

한국교회탐구센터는 해마다 한국교회에 관한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4대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올해도 온라인 여론의 4대 이슈를 발표했다. 각 연도별 4대 이슈를 보면 2020년의 이슈는 '코로나 19 확산', '신천지의 코로나 감염',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 '목회자 강력 범죄'였고 2021년에는 '코로나 집단감염', '목회자 강력범죄', '방역 수칙 위반', '입양아 학대'였다. 4가지 이슈 모두 부정적 이슈였고 사회적 반향이 뜨겁게 일어났던 이슈였다. 이 가운데 교회발 코로나 감염 이슈는 교회가 자기들 신념과 활동을 위해서 공익과 사회적 규칙을 무시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는 일반국민들에게 거북한 이미지를 형성시켰다. 정인이 사건으로 대표되는 입양아 학대 이슈와 목회자 범죄 이슈는 교회와 기독교인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존재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 이미지와 신뢰도는 크게 실추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20년 1월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기독교 전문 여론조사회사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는 31.8%였다. 코로나19를 거친 2022년 4월 중견 교회 목회자 모임인 '사림과 섬김'과 국민일보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발표한 신뢰도는 18.1%로 급락했다. 한국교회는 배타적, 이기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화되었으며 교회 호감도는 25.3%로서 35.4%와 66.3%의 호감도를 각각 보인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 크게 뒤질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실추되었다.

2022년의 4대 이슈는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회복',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목회자 강력범죄'였다. '목회자 강력범죄'는 해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이슈로서 한국교회 이미지를 갉아먹는 치명적 요인이며, '신천지 포교활동 재개'는 우리가 신천지 활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의를 주는 이슈이다.

4대 이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였다. 지난 3년 간 부정 이슈만 있었으나 올해는 한국교회에 대한 긍정적 이슈가 부각된 것이

다. 이 긍정적 이슈를 분석하면 긍정적인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전쟁이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기도하고 모금을 해서 물질적 지원을 한 이슈였다. 우리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인류애적 공감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 애쓰는 행동이 부각된 것이다. 2021년 미얀마에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 일각에서 미얀마 민주화 항쟁을 지지하는 성명 및 기도회가 개최되었는데, 이와 같이 지역적 인종적 차이를 넘어서 전 세계적 재난과 전쟁 그리고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을 돕는 교회의 모습은 자기 생활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혹은 관심만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과 사회를 교회가 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교회가 사회를 일깨우는 역할을 할 때 세상은 주목한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에서 참사는 이태원 참사를 의미한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159명의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교계 일각에서는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 모인 사람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러한 참사에 공감하며 이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모습은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구조하고 돌본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이었다.

또 이번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한교총에서 울진 산불 이재민의 집을 새로 지어준 일 등은 지자체들이 하지 못한 일을 교회가 했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세상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속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감과 위로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 고통이 발생할 때 세상속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해주신 예수님의 행동을 따를 때 교회는 비로서 자기 사명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를 얻는 길이며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1.[한국 섬 선교 실태]

2.[한국의 국회의원 수(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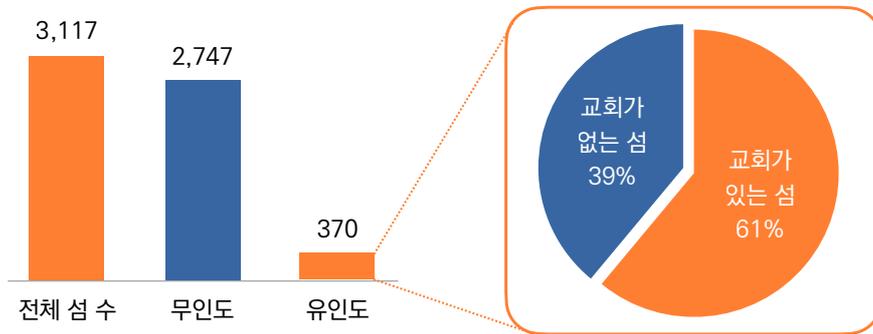
3.[한국 남성의 육아 참여]



## 한국의 섬 교회 실태, 유인도 10개 중 4개는 ‘무교회 섬’!

- ▶ 코로나19, 인구 감소, 저출산 등의 문제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한다. 육지가 아닌 섬 사역을 하는 교회는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를 더욱 크게 실감하고 있는데, 섬 선교단체인 한국섬선교회에서 최근 발표한 국내 섬 선교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 한국섬선교회의 ‘2023 섬 선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전체 섬은 3,117개인데 이 중 유인도는 370개였다. 유인도 가운데 ‘교회가 있는 섬’은 61%로 10개 중 6개 정도였고 나머지 39%는 ‘교회가 없는 섬’인 무교회 섬이었다.

[그림] 국내 섬교회 실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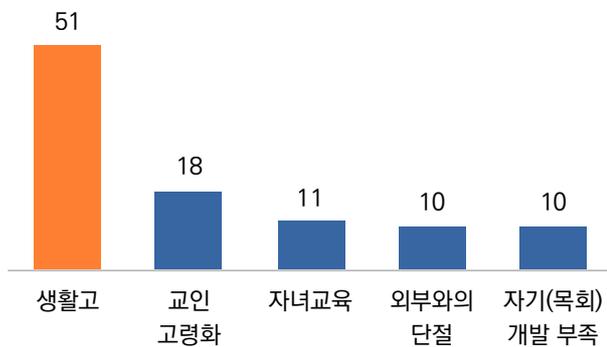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민일보, 약해져가는 섬 섬 섬... 복음의 등대가 꺼져간다, 2023.01.2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3372>)

### ◎ 섬 목회자, 2명 중 1명은(51%) ‘생활고’로 어려워!

- ▶ 섬교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어려운 점에 대해 물은 결과, 섬 목회자의 절반(51%)이 ‘생활고’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교인 고령화’ 18%, ‘자녀 교육’ 11%, ‘외부와의 단절’ 10% 등의 순이었다.
- ▶ 의료, 복지, 교육 등 각종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고립된 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감으로 섬기는 섬 목회자들은 단순 미자립이 아닌 존폐의 기로 가운데 있다.

[그림] 섬 목회자에게 어려운 점 (%)



\*자료 출처 : 국민일보, 약해져가는 섬 섬 섬... 복음의 등대가 꺼져간다, 2023.01.2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3372>)



## 한국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17만 명으로 OECD국가 중 4위!

- ▶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일까? SBS NEWS 분석 자료를 통해 OECD 36개국의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를 파악하고, 한국의 위치를 살펴본다.
- ▶ 각 국가의 인구수를 국회의원 정원으로 나누어 계산한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1위는 62만 362명으로 ‘미국’이 가장 많았고, 2위 ‘멕시코’, 3위 ‘일본’, 4위가 ‘한국’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국회의원 1명이 국민 17만 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국가 중 의원 1인당 차지하는 인구 수가 상위권에 들었다.
- ▶ 다만 미국은 주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연방주의 국가로 행정권의 상당 부분을 주에서 담당하기에 미국 상·하원 국회의원 수가 아닌 주 의원 수를 비교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표] OECD 국가(36개국) 국회의원 정원과 1인당 인구수 (상위 10위, 명)

순위	국가	인구	의원 정원	의원 1인당 인구수
1	미국	3억 3,189만	535	62만 362
2	멕시코	1억 2,671만	628	20만 1,760
3	일본	1억 2,568만	707	17만 7,767
4	한국	5,174만	300	17만 2,483
5	튀르키예	8,478만	600	14만 1,292
6	독일	8,320만	667	12만 4,732
7	호주	2,569만	227	11만 3,163
8	이탈리아	5,911만	600	9만 8,516
9	칠레	1,949만	205	9만 5,089
10	캐나다	3,825만	443	8만 6,334

\*자료 출처 : SBS NEWS, “한국은 국회의원 너무 많다” 따져 보니 기사 참조, 2023.01.2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5093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5093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 인구 비슷한 나라끼리 비교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수 많지 않다!’

- ▶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여길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 6개를 떼어 살펴보자.
- ▶ 우리나라 인구수와 비교적 비슷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보면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가 각각 9만 8,516명, 7만 7,099명으로 한국(17만 2,483명)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나라들끼리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두 배 또는 그 이상 되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이다.

[표]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OECD 6개국 국회의원 정원과 1인당 인구수 비교 (명)

국가	인구	의원정원	의원 1인당 인구수
프랑스	6,775만	925	7만 3,243
영국	6,733만	1,450	4만 6,432
이탈리아	5,911만	600	9만 8,516
한국	5,174만	300	17만 2,483
스페인	4,742만	615	7만 7,099
캐나다	3,825만	443	8만 6,334
폴란드	3,775만	560	6만 7,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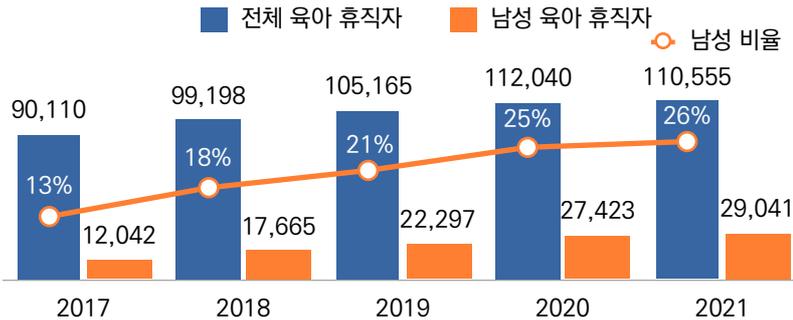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SBS NEWS, “한국은 국회의원 너무 많다” 따져 보니 기사 참조, 2023.01.2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5093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5093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우리나라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2017년 13% → 2021년 26%로 증가 추세!

- ▶ 한국에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고용노동부의 '남성 육아휴직자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2021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110,555명이었고,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29,041명으로 4명 중 1명 수준(26%)이었다.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에서 2019년 21%, 2021년 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남성 육아휴직자 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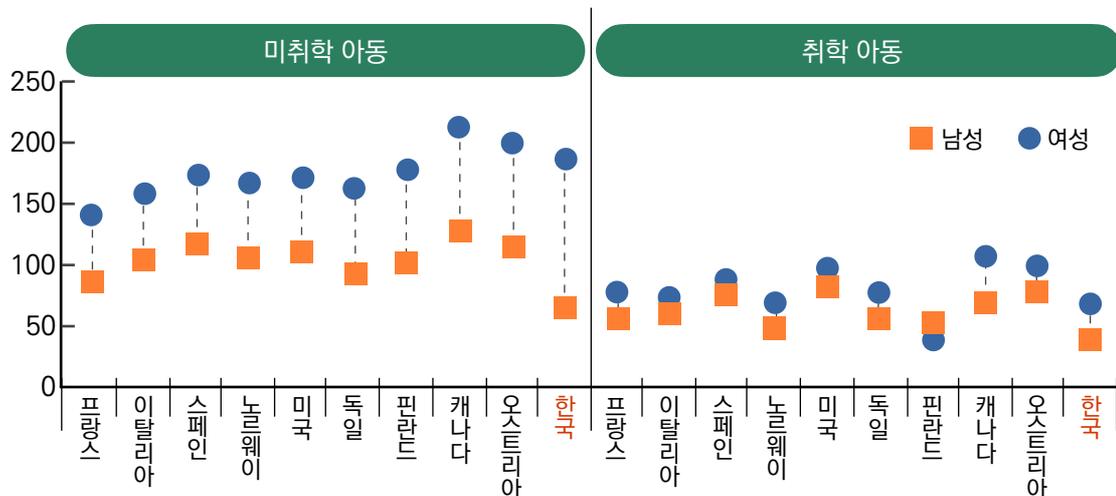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IN, '아빠의 육아 참여 성공 조건은?' 기사 참조, 2023.01.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06>)  
 참조) 원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자녀 맞춤형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 꾸준한 증가 추세' 보도자료, 2022.04.26

### ◎ OECD 주요 10개국 중 한국 남성의 육아 참여 시간, 가장 저조해!

- ▶ 그렇다면 자녀 돌봄을 위해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OECD 양성평등 추구 2017 보고서」를 보면 OECD 주요 국가에서 엄마 아빠가 가장 어린 자녀와 하루 동안 보내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미취학 자녀와 취학 자녀 집단 모두에서 엄마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아빠와 보내는 시간 대비 긴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취학시기로 접어들면 엄마, 아빠 간 아이 돌봄 시간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 ▶ 한국은 OECD 비교 대상 국가 중 미취학 자녀와 취학 자녀 집단 둘 다에서 아빠의 돌봄 참여 시간이 가장 저조했고, 미취학 자녀의 경우 아빠와 엄마의 돌봄 참여 시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하루 중 가정에서 가장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하는 시간 (OECD 주요 10개국, 분)



\*자료 출처 : 시사IN, '아빠의 육아 참여 성공 조건은?' 기사 참조, 2023.01.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06>)  
 참조) 원자료 출처 : OECD,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An uphill battle, 2017, 192p. ([https://read.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the-pursuit-of-gender-equality\\_9789264281318-en#page11](https://read.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the-pursuit-of-gender-equality_9789264281318-en#page11))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28호\(2023년 2월 1주\)](#)

- 대통령 지지도, 정당별 호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감·가능성 인식, 정부 대응 평가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89호\(2023년 1월 5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이유, 국정운영 신뢰도, 정당지지도 등

◎ 사회 일반

["한국 민주주의의 세계 16→24위 하락...국민자유 ↑ 정치문화 ↓"](#)

연합뉴스\_2023.02.02.

[한국인의 주식이 고기로 바뀌었다...“밥심으로 산다”는 옛말](#)

한겨레\_2023.02.05.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

연합뉴스\_2023.02.06.

["2020년생 노인될때도 한국 노인빈곤율 최악...10명중 3명 빈곤"](#)

연합뉴스\_2023.02.05.

[50~60%대 유지해온 중산층, 다음 세대엔 줄어들 듯](#)

중앙일보\_2023.02.01.

["작년 비자발적 실직자 3명 중 2명 실업급여 못받아"](#)

연합뉴스\_2023.02.05.

[올해 서울대 합격자 64% 남학생... 통합수능 영향](#)

조선비즈\_2023.02.03.

[따로 노는 청소년...보수·남성은 폐북, 진보·여성은 이곳 즐겨](#)

매일경제\_2023.01.31.

[5060 퇴직남 우울증에 빠지다...우울·불안장애 환자만 19만명](#)

조선일보\_2023.02.07.

[AI관련 기사 모음, (여성신문)]

[1. 인공지능이 나에게 거리두기를 한다면 \\_2022.02.26.](#)

[2. 기계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은 바빠야 한다 \\_2022.03.20.](#)

[3. 인간이 AI보다 한 수 앞서야 하는 이유 \\_2022.04.23.](#)

[4. AI에게 추앙받는 사람 \\_2022.05.22.](#)

[5. 메타버스서 공포증 극복·명품 쇼핑... '비바 테크놀로지 2022' 참관기 \\_2022.06.23.](#)

[6. 월경·난자 냉동... 79조 펌테크 시장 더 커진다 \\_2022.07.21.](#)

[7. 사람을 살리는 AI 솔루션이 필요하다 \\_2022.08.21.](#)

[8. 이상행동 탐지·채팅앱 신고...AI로 스토킹 막으려면 \\_2022.09.19.](#)

[9. 일하다 죽지 않게 만들 기술이 필요하다 \\_2022.10.19.](#)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10. 'AI 예술가'는 이미 현실, 이제 창작자들이 연대해야](#) \_2022.11.19.

[11. 요즘 대세 '챗GPT' 이후의 AI는 어떻게 진화할까](#) \_2022.12.21.

◎ **경제 / 기업**

["원격근무 빅뱅" 예상 틀렸다...집·카페서 일해본 그들의 반전](#)

중앙일보\_2023.02.04.

["사회성도 경험도 부족"... 코로나 학번 못 미더운 기업](#)

매일경제\_2023.02.05.

[요즘 공무원들 "돈도 없고 가오도 없고 노후도 불안하다"](#)

조선일보\_2023.02.03.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재택근무, 하루 업무 30분씩 늘렸다](#)

한겨레\_2023.02.01.

◎ **국제**

["北 식량부족 사태, 1990년 대기근 이후 최악"](#)

시사저널\_2023.01.20.

[미래 불안에 '코로나 저축' 안 쓰는 일본...GDP의 10% 초과](#)

연합뉴스\_2023.02.05.

◎ **건강**

[1인 가구 늘어나는데...혼밥 자주하면 '이것' 위험 ↑](#)

동아일보\_2023.02.04.

◎ **기독교 / 종교**

[교회, 외로움을 돌보다]

[4명 중 1명 '중증의 고독'... 종교인이 외로움 덜 땀다](#) \_2023.02.01.

[〈설문 통해 본 교회의 역할〉 세대 맞춤형 공동체 만들어 마음 터치... 고독감 날린다](#) \_2023.02.01.

[美 34%가 '목회자 신뢰'... 팬데믹 이후 하락세](#)

크리스천투데이\_2023.02.05.

['진격의 챗GPT' 3분 만에 설교문 똑딱... 목회 사역에도 충격파](#)

더미션(국민일보)\_2023.02.07.

◎ **칼럼**

[한국교회 헌금 총액은 얼마인가](#)

국민일보\_2023.02.02.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시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दन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강정남, 강종희,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권순홍, 김고은, 김관상, 김기혁, 김동찬, 김동하, 김대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성현,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기,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인수, 김종천,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 찬, 김태철,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홍기, 계만석, 나광균, 나윤만, 남기환, 남도현, 남성태, 노기환, 노현민,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상훈, 박세용, 박승수, 박영철, 박영호, 박재덕,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지혜,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변형석,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경복, 서기원, 서연우, 서영진, 서우정, 서은영,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은뜸, 신명자, 신승민,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심명현, 안요한,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양승일, 엄정석, 여삼열, 오강일,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진웅, 유형창, 윤도형, 윤동하, 윤상현, 윤성덕, 윤여민, 윤영조, 윤정국, 윤치호, 윤홍경, 이경만, 이경선, 이국희, 이기원,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열, 이상성, 이상호, 이석윤, 이석준, 이선진, 이성근, 이성득,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섭,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재형, 이재혁,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형근,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원하나, 장병철,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준영, 장진수, 장재영, 장형철, 전근영,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영자,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진혁, 정재용,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인화, 차원수, 천성환, 최명영, 최명호,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최호균, 한동준, 한병록, 한영숙, 한재용,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 신규 후원 |

상심교회(담임목사 박지환), 최원경, 감덕규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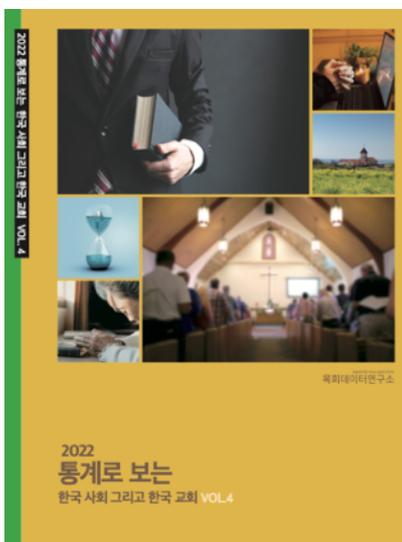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 연구소 소식 |

- 2022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 전체를 모아 엮은, <2022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4>를 출판하였습니다. 책 출판을 위해 재정 후원해 주신 일산 한소망교회(류영모 목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분들에게는 이미 배포해 드렸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한 분이나, 후원자가 아니지만 꼭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